

2023 국악창작곡 개발 <제17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본선 심사결과 안내

2023 국악창작곡 개발 '제17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9월 7일(목)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개최되었으며 당일 현장에서 진행된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본 대회에 참가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심사개요

- 일시/장소 : 2023년 9월 7일(목) 19:00~22:00 / 국립국악원 예약당
- 심사내용 : 2023 제17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본선진출팀 실연 심사(10팀)
- 심사위원 (*가나다순)

번호	이름	주요 프로필	분야	비고
1	계성원 (심사위원장)	- 작곡가, 지휘자 - 현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성악단 예술감독 - 전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예술감독 - 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	국악 (작곡 및 지휘)	
2	곽수은	- 가야금 연주가, 작곡가 - 가야금양상블 '라운G' 대표 - 국립안동대학교 겸임교수	국악 (연주)	
3	김미소	- 축제기획자 -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총감독 - ALPS 대표	대중 (축제기획)	
4	김지욱	-공연 / 전통문화 기획자 -인사이트모션 사업부문 대표 -남산국악당, 돈화문국악당 운영 총괄	다원 (기획)	
5	이예진	-작곡가 -제1회 국제박영희작곡상 대상 수상 -제11회 ARKO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선정 작곡가 -서울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출강	국악 (작곡)	
6	이정주	- 거문고 연주가, 작곡가 - 프랑스 앵테르미탕 예술가 - 낭트 한국의 봄 예술감독	국악 (연주)	
7	이희문	- 이희문컴퍼니 대표 - 밴드 'OBSG 오방신과' 리드보컬 -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 2021서울시문화상 국악부문 수상	국악 (성악)	

○ 심사항목 : 대중성(30점), 음악의 완성도(30점), 독창성과 창의성(20점), 국악적 요소의 창조적 계승(20점)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점수는 최저 70점, 최고 99점으로 상·하한 점수 규정
- 팀별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위원 투표를 통해 결정
- 심사회피제도 시행

□ 심사결과

구분	팀명	곡명	시상내역
대상	공상명월(空想明月)	순라꼭질	국무총리상, 상금 1천 5백만원
금상	풍류공작소	나리소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상금 8백만원
은상	국악창작앙상블RC9	KARMA(業)	국립국악원장상, 상금 5백만원
은상	Scene(씬)	너을; 超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5백만원
동상	움브레스	불이과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3백만원
동상	시작(詩作)	새벽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3백만원
장려상	음악그룹 Om	Silk Road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2백만원
장려상	흥 열(興 spirit)	나비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2백만원
장려상	음악그룹: 연출	환영(幻影)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2백만원
장려상	TIMY	System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2백만원

□ 주요 심사평

이름	주요 심사평
계성원 (심사위원장)	<p>각 팀별로 다양한 실험과 고민이 담긴 공연이었습니다.</p> <p>그러나 노래곡의 경우 보컬과 반주의 부조화, 음향적 불균형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p> <p>또한 곡의 구성과 전개에 있어서 맥락이 끊기거나 개연성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p> <p>이런 것들이 보완된다면 작품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p> <p>모두 수고하셨습니다.</p>
곽수은	<p>무대에서의 떨림과 설렘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민과 노력의 과정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창작의 조건인 기발함과 호기심, 재미를 가득 채운 무대였습니다. 보컬의 즉흥성과 호흡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창작인, 연주자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작품은 한없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p>

김미소	<p>전반적으로 앙상블과 음악적 완성도면에서는 안정적이었습니다.</p> <p>전반적으로 평이한 스타일의 음악이 주를 이뤘으나 개성과 실험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상이었습니다.</p> <p>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상상하는 아이디어, 표현법으로 생동감 있는 음악을 만들어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p>
김지욱	<p>본선 진출 10팀의 특색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경연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 팀의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무난한 연주를 보여준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p> <p>하지만 우리 음악을 현대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각 팀의 고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연주곡들이 노래곡 보다 조금 더 돋보였습니다.</p>
이예진	<p>서로 다른 음색과 생각이 만나 하나의 소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했는지, 참가자들의 과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MZ 연주자들의 풋풋한 아이디어와 표현력이 인상적인 대회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평을 반영하여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작품을 발전시키실 바랍니다. 한국음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신의 음악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계 음악계를 이끌어갈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대합니다.</p>
이정주	<p>21c한국음악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그룹들에게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며 즐겁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라 생각합니다.</p> <p>이 순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의 또 하나의 새로운 미래의 창을 열 수 있게 될 계기가 될 겁니다. 각 그룹의 보컬의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지만 좀 더 더 깊고 다양한 색깔을 찾았으면 합니다.</p> <p>악기 연주자들의 배려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p>
이희문	<p>21c한국음악프로젝트가 다른 경연과 다르게 경연자도 심사위원도 어려운 점이 '한국음악의 어법이 얼마나 어떻게 영민하게 녹아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결과를 보며 그동안의 과정을 추측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p> <p>독창성,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한국 음악의 어법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개인의 학습 정도가 기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보컬이 있는 팀보다 연주팀이 굉장히 돋보였던 무대가 많았습니다. 또 새로운 조합에서 오는 신선함과 위트가 재밌었습니다.</p>

□ 문의 :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운영사무국 (02-300-9973)